

참을 수 없는 시험을 참고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력을 키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초창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몇 십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를 볼 때는 10년 후에 이렇게 크게 이루어질 것을 감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초창기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 승리제단이 온 천하를 움직이며, 온 천하 만민들이 다 구름덩이처럼 물려 올 것이라는 것도 지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초창기에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온 천하 만민들이 다 승리제단에 모여 와서 그들이 전부 복종을 할 뿐만 아니라 올 때 은금보화를 신고 온다는 말도 이루어진다.

생각이 일어났지만 마귀한테 씌우면 왜 그런지 오늘 하루만은 쉬어야 되겠다. 무슨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은 예배를 안 봐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의해서 제단을 빠지는 것이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사흘을 빠지면 완전히 제단 나가기 싫고 그러면서 제단 나가는 것을 허송세월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제단 나가는 시간에 돈을 벌고, 밖에 나가서 세상일을 보면 큰일을 할 수 있는데 괜히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생각에 의해서 예배 보는 것을 중요시 하지 않게 되고 소홀히 생각하게 된다. 그럼으로 완전히 사자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긴자의 뜻대로 우주가 움직인다

현재도 온 천하만국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긴자의 뜻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생각한 대로 전 세계가 움직인다. 전 세계가 마음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 천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제단을 쌓으라, 매일같이 예배를 보라고 말씀한 것은 매일 와서 예배를 안 보면 피가 썩으며, 매일같이 예배를 봐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죽으며, 매일같이 예배를 봐야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 너무 정확한 말이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만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단을 쌓을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녹음테이프 내지 비디오로 매일 예배를 보도록 하라고 했다. 예배를 하루 이틀 사흘만 안 봐도 의심이 일어나고 제단 나오기 싫어진다. 나오기 싫은 것은 사자마귀한테 씌워서 마귀한테 사로잡힌고로 그 마음이 완전히 마귀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그 전에는 밥만 먹으면 제단 가고 싶은

매일 예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얼굴은 완전 다르다

그런고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제단을 쌓고, 끝까지 은혜를 받고, 끝까지 제단 나오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제단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의 얼굴과 계속해서 제단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그때 가서는 완전히 얼굴이 다르다. 여러분들끼리는 현재 분별을 못 하지만 여기 단에서 있는 사람은 척 보면 지금도 분별이 된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하나님에게 온 정성을 기울여서 충성을 하는 사람의 얼굴과 나태한 가운데서 마치 못해서 제단에 출석하는 사람의 얼굴과 평상시에 자유율법을 어기고 가끔 성질을 부리고 가끔 싸우고, 가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했지만 마귀한테 씌운 사람의 얼굴은 시커멓다고 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시커멓게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시커멓게 보인다. 왜 저렇게 시커멓게 하고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자유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한테 씌워서 얼굴이 시커멓다. 또한 그 사람 곁에 가면 악취가 난다. 욕심을 부리고 성질을 낸 이런 사람들은 대개 악취가 난



구세주 조희성님

다.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꼬랑내가 난다. 똥내보다 꼬랑내가 더 지독하다. 욕심을 부리고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구린내가 난다. 쓸데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꼬랑내가 난다. 도둑질보다 살인죄가 더 무서운 죄다.

죄인의 몸에서는 토악질이 난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꼬랑내가 나서 곁에 갈 수가 없다. 집에 오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다. 꼬랑내가 나서 갈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바빠서 못 간다고 했다. 여러 식구들

한테 저녁 식사를 초대받지만 가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형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집안이 꼬랑내로 꽉 차서 숨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런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 이 사람이 뭐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일이 바빠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자유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집에 가면 향취냄새가 진동을 한

다. 그런 집은 방안의 공기가 좋지만,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집에 가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 그래서 못가는 것이다.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좀 구린내가 나고 꼬랑내가 나도 참고 가는 경우가 있다. 가는 경우가 있지만 곤욕이다. 한번 바꿔 생각해보요. 꼬랑내가 나고 구린내가 나는 곳에 가서 한두 시간이고 앉아 있으면 곤욕스러운 것이다.

이긴자는 불쌍한 존재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 죄인들과 친구가 되려야 될 수가 없고, 같이 생활하려면 생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늘에 속한 의인의 생활은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서 생활하는고로 죄인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과 다르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의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은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은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러한 곤욕을 참고 견디면서, 토악질나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생활해 보니까 알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완성자이고로 훨씬 더 한 것이다. 냄새가 더 난다. 사실은 냄새가 무지 무지하게 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긴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이긴자라는 것을 초창기부터 말씀했죠? 이긴자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를 벗은 사람이고로 그런고로 그 몸과 마음과 피가 한없이 깨끗하죠? 깨끗하고로 촉각이나 눈으로 보는 감각이나 육감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를 보면 이 사

람은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강대상을 붙잡고 한참 서 있다가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각도에서 죄인들의 마음을 볼 때 토악질이 난다.

마귀는 인내력이 없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 식구를 전도할 때에 새 식구가 말을 안 듣고 의심을 하고 그럴 때 그냥 그만 뒀으면 하는 마음이 나온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 그런 마음이 나오거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신이요, 인내의 하나님이고로 그런고로 아무리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는 입장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는고로 견딜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성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그냥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마귀는 참는 힘이 없고, 견디는 힘이 없다. 마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면 참는 힘이 없는고로 그런 것이다. 그게 마귀의 약점이고 성품이다. 그런고로 사람이 하나님 되려면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성품을 키워야 된다. 그런고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성품을 먼저 키워가지고 이루어만 이루어 반드시 구원이요, 반드시 영생이요, 반드시 이긴자가 된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긴자가 될 수밖에 없는고로 더 이상 참으려야 참을 수 없는 시험을 계속 주는 것이다.*

1991년 12월 6일 말씀 중에서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초능력 현상이란 걸 결코 생각할 수도 없다. 앞 호에 이어 두 번째 초능력 현상의 유형을 살펴보자.

되어 나오는 빛을 쬐는 것이므로 강한 사람파에 의해서 빛을 열마든지 번조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영사기로서 영사막에 그림을 투영하는 원리와 같다.

영사 현상 연구는 일본에서 특히 발전

1911년 12월 26일, 일본 동경제대 교수 도모키치 후쿠라이(Tomokichi Fukurai) 공학박사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발견 되었다. 이 현상을 일컫는 일본말 '넨사(영사)'는 국제 용어가 되었다. 이 신비한 현상에 언론이 주목했으며, 카트린 로스(Catrin Ross)의 책, 『초자연적인 신비의 일본 : 영혼, 귀신 들림, 초자연 현상』에 의하면 1917년 2월 18일 나고야의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모임에서 영사 능력자인 미타 고이치는 약 3,000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초능력을 했다. 그가 운데 제3사단 참모장 신토의 감시하에, 9m 떨어진 거리에 마련해 둔 12장의 건판 중 6번째 건판에 가즈라 총리대신의 화상을 2분 만에 감광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1930년 3월 16일에는 교토 공회당에서 후쿠라이 박사



최근 개봉된 영화 '영역'에서 배우 류승룡이 연기하고 있다

의 감시 하에 옛날 일본의 고승 흥법 대사의 상을 15초 만에 영사하였다. 그녀는 그 뒤 동남아 각국을 순방하면서 영사 시범을 하였고, 그때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그 기사의 양이 엄청났다고 한다. 1932년, 32세의 미타는 후쿠라이 박사 때 2층에 놓인 두 장의 건판 위에 달의 이면을 영사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우주선인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 수 십년 전의 일이다.

최근에 영국의 심령학회와 영국의 다니엘 교수가 아폴로 우주선이 찍은 달의 이면 사진과 미타의 영사 사진을 대조, 세밀한 과학적 측정을 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영사막은 물리적인 중간매개가 없이 영역에 의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효과를 야기시키는 현상이다.

마음의 힘이 투여될 때, 신체 주변의

생명력장(生命力場)이 진동

소련의 과학자들이 엄밀한 과학적 실험과 측정을 통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영능자(靈能者)가 에너지의 기(氣)를 집중시켜 영역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때 물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게 하는 영능자의 주변에 강력한 자계(磁界)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단 영역을 투사 시키면 자신의 에너지의 피복 전체에 일종의 에너지파의 진동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장(場)인 작용력대의 전역(電域)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도 이 진동에 따라 맥박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탐지기는 이 진동을 계속하는 작용력대가 마음의 힘을 투시하고 응시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세르게이예프 박사는 어떤 물체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겨냥할 때, 진동하는 작용력대가 물체를 움직이며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즉 마음의 힘이 투여될 때, 신체 주변의 생명력장(生命力場)의 진동은 자기파동(磁氣波動)처럼 나타나며, 이

것이 발생하는 순간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비록 비자성적(非磁性的)인 물체라 하더라도 자화(磁化)된 것처럼 동작반응을 일으켰다. 이것에 의해 목표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려나게도 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의 신경 정신병 학자인 레오날드 라벗 박사도 '마음이 신체 주변의 이 작용력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모든 인간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주변과 상호 연관적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고 및 감정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체의 작용력대에 직접 영향을 주고, 또한 영적 능력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많은 수도자들이 피맺히는 노력 끝에 마음을 다스리고, 능력이 발휘되어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행한 일이 많았다.

사실은 심령현상이 곧 초능력현상이다. 초능력 현상을 본격적으로 '피의 원리'를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 보도록 하겠다.*

김주호 기자

심령현상의 과학적 기초 원리3

일본에서 영사 시범 실제로 행하였으며 이는 마음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